

고려대 ICR 센터, 21 일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2014-02-20 12:27 기사수정 2014-02-20 12:27

고려대 혁신·경쟁·규제법센터(ICR 센터)는 이달 21 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네이버·다음 동의의결안의 배경 및 내용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20 일 밝혔다.

법학자, 법조인 및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이번 세미나는 올해 ICR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의 발전방향 모색' 기획세미나 시리즈의 첫 번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인터넷 포털을 중심으로 첫 사안이 진행되고 있는 동의의결 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권철현 과장의 '동의의결제도의 현황과 전망-인터넷포털 동의의결 사건을 중심으로'를 시작으로, 권국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동의의결안의 개시결정을 위한 조건'과 곽주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동의의결안과 관련된 몇 가지 실증 자료'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어 관련 학계와 실무 전문가를 패널로 초청해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순서도 진행된다. 패널토론은 손인옥 법무법인 화우 고문(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하고, 최난설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이정민 인터넷 콘텐츠협회장과 박종순 다음커뮤니케이션 법무팀장이 참여한다.

학교측은 "이번 기획세미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 개선 노력에 동참하고 보다 나은 발전방향을 여러 정책담당자, 학자, 실무가들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